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30일 (음력 12월 25일) 수요일

예타 면제로 '광주 인공지능(AI)산업' 날개 달다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광주시의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선정할 가운데 40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이 광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모든 산업에 적용하게 될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인재 양성, 기업 창업까지 추진할 예정이어서 광주 산업기반에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AI 연구원 · 인재양성 · 창업지원 등 집적화
첨단3지구1단계 5년간 사업비 4000억 투입

사업 부지는 광주 북구 첨단3지구 연구교육단지 내 20만평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이다.

사업비는 당초 1조원을 신청했으나 이번 심사 과정에서 1단계 사업기간을 5년으로 정해 4000억원으로 감액했다.



설 대목 맞은 장성 황룡 전통시장 북적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목장이 열린 전남 장성군 황룡 전통시장이 차려 음식 장만을 위해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신의 한수' 한전공대 입지 '부영CC' 기부채납 통 큰 결단

한전 공과대학(일명 케프텍·Kepco Tech) 후보지로 제안된 이후 최종 입지로 확정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부지 제공은 '신의 한수'였다가 평가다.

29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법정부설립지위원회는 전남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을 한전공대 설립 입지로 확정 발표했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 심사위가 진행한 1단계 평가에서는 광주 '북구 첨단3지구'가 산학연 연계성면에서 최고점을 얻으면서 전남 지역 후보지인 '부영CC'를 제쳤다.

하지만 입지조건과 경제성 등을 따지는 2

단계 평가에서 이번이 일어났다.

'부영CC'는 앞서 나가던 '첨단3지구'를 6.44점 차이로 크게 앞섰다. 이후 1·2단계 점수 합산에서도 2단계 압승에 힘입어 광주 첨단3지구보다 4.24점이 많은 92.12점을 받

부영그룹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제공은 크게는 국가와 작게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경영진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부영CC는 전체 72만㎡ 중 40만㎡(56%)를

부영 관계자 "지역사회 공헌사업 구상중 경영진 고심 끝 내린 결단"
전남미용고 3층 규모 생활관 신축 기증 · 능주고 직접 설립 운영 중

이 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나주혁신도시 시점'을 이끌어 갈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된 '부영CC' 부지 제공은 부영그룹의 통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부채납 방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한전 공대 캠퍼스가 착공되는 시점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부영 측과의 협의를

사업 주관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지자체는 광주시,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맡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T),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등 4개 기관이 구성한 광주권소사업이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AI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자동차, 에너지, 광·헬스케어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한다.

일자리 창출은 2만7500명, 창업 2000개, 인공지능 전문가 5160명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으로 국내외 산·학·연 연구 협업체계를 만들어 인공지능 R&D, 시범·인증 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광산업 등과 연계해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역량을 강화한다.

이용섭 광주지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기존 방식대로 예산규모가 큰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건설사업을 신청했지만 광주는 발상을 전환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인공지능 R&D사업을 신청했다"며 "지역발전 전략을 SOC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혁신 성장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서은홍 기자



물염치

다들아민주당 최고위원들이 28일 자유한국당 최고일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서지현 검사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고일 의원은 최근 지역 2선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최 의원은 이 성추행사건을 통보받은 뒤 임은정 검사의 진상조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안태근 판결문에도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주당 박주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수요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면서 안태근의 판결문은 안태근만의 것이 아니다. 그 판결에는 검사의 성범죄를 알고도 은폐하고 침묵한 검사들, 치졸한 인사보복 자식을 받아 이행한 검사들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시스



박주인



최교일



서지현

신봉우 기자

사람이 우선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